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34-0702

John Hopkins

Bishop

E-mail: bishop.hopkins@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

사랑하는 북일리노이 연회의 친구 여러분!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한 사순절을 시작하며 문안 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초청 받았습시다!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즉, 돌아 서서 다른 길을 택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가 될 것인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 : 6-9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빠지게 하고, 희망이 없어지고, 파멸과 부서짐, 두려움, 분노, 외로움으로 이끄는 길로 계속 걸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설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이 "죄" 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려고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다 허물어졌는데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절기가 시작 되면서, 목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또는 "당신은 흠으로 형성되었고 따시 흠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우리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재를 묻히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혹한 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선보다 악을 행한 죄와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한 죄들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이기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잠깐 멈추어서, 침묵하며 겸손히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훈련은 기도와 금식, 구제와 금욕, 반성과 죄의 고백,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원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엄숙한 절기로서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순절은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주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40일 동안 개인 성장 훈련을 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 하시는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는 다시 우리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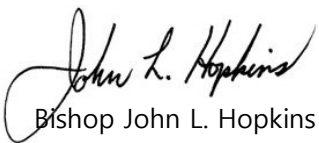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용서와 화해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부활절의 문턱에서 사순절을 끝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받기 원합니다.

끝으로, 프란시스 교황 (Pope Francis) 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금식을 하신다면.

- 상처를 주는 말을 금식하고... 친절한 말을하십시오.
- 슬픔으로부터 금식하고... 감사함으로 가득 넘치십시오.
- 분노로부터 금식하고 ... 인내로 가득 넘치십시오.
- 비관주의로부터 금식하고... 희망으로 가득 넘치십시오.
- 걱정으로부터 금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 불평으로부터 금식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 압박감으로부터 금식하고...기도하는 마음으로.
- 괴로움으로부터 금식하고...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 이기심으로부터 금식하고 타인에 대해 배려하십시오.
- 원한으로부터 금식하고... 화해하십시오.
- 말하는 것을 금식하고...듣기 위해 침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Bishop John L. Hopkins